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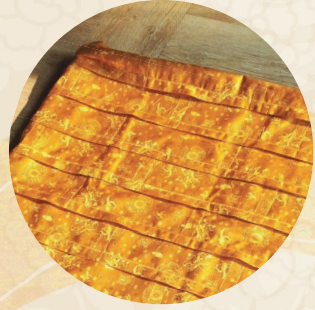
삼신불 복장물 봉안불사 봉행

법왕사는 지난 9월 2일 주조가 끝난 삼신불을 법왕사 대적광전으로 이운하여 본격적인 봉안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3일에 도착한 삼신불 좌대에 개금을 한 다음 오는 11월 18일에는 복장물 봉안불사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일시 11월 18일(음력 10월 1일)

삼신불 주요 복장물

금란가사(3벌)	복장물함(3개)	장삼(3벌)
각 500만원	각 500만원	각 100만원



- ⊕ 개인·가족·사업체 : 각각 5만원 동참 가능
- ⊕ 주소·이름을 **금 은 동** 판에 새겨주십시오.

동참계좌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2018년 수능 7일 기도 입재

법왕사에서는 2018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고득점을 기원하는 7일 관음 기도를 오는 11월 10일 입재하여 수능일인 16일에 회향합니다. 이번 7일 기도는 지난 8월 9일 입재한 100일 기도와 21일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수험생과 부모 불자들을 위하여 봉행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16일 수능일까지 7일 동안 용맹정진 기도를 올립니다. 올해 수험생을 둔 불자들은 영험 있는 기도 도량인 법왕사에서 7일 동안 관음기도를 정성껏 올리고 불보살님의 가피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7년 11월 10일 ~ 16일(수능일)
- 장 소 : 법왕사 대적광전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7. 11 | Vol. 275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시월 상달 산신대재 봉행

- 일 시 : 2017년 12월 3일(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야외 산신단
- 동참금 : 사업체 - 10만원, 가족 - 5만원, 개인 - 3만원



예로부터 산신은 선한 사람을 도와주고 악한 사람을 벌하는 '권선징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명산이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매년 추수가 끝나는 시월 상달을 맞아 산신님께 재를 올려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빌어 왔습니다. 이에 법왕사도 나라의 평안과 신도님의 각 가정마다 풍요로움을 기원하고 소원성취하시도록 산신대재를 봉행하고자 하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동참계좌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대적광전 삼신불 점안 대법회 봉행



- 일 시 : 2017년 12월 22일(동짓날)
〈동지시 : 01시 28분〉
- 증명법사 : 관일 큰스님

법왕사에서는 오는 12월 22일 동짓날을 맞아, 그 동안 여법하게 가꾸어 온 삼신불에 대한 점안 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점안의식은 불상에 참배의 대상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의식으로 법왕사는 그 동안 삼신불을 모실 좌대에 개금을 하고 복장물을 봉안한 데 이어 밝음이 다시 태동하는 동짓날을 맞아 대적광전 삼신불 점안 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니, 불자 여러분께서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Vol. 275호



- 04 깨침의 향기**
공덕을 쌓아야 후손이 잘 된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6 비슬산방**
대승보살의 참된 삶 - 육바라밀(2) · 실상 주지스님
- 08 법왕논단**
행동 조심하면 고귀한 사람 된다 · 본원스님
- 12 불교의 보살들**
보살의 공덕으로 복덕과 지혜 성취한다
- 16 우리나라 사찰 건축물**
수행의 터전이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공간
- 20 명찰 순례**
문수보살의 성산 강원도 평창 오대산 월정사
- 24 해오름 요양원 - 함께 알면 좋아요**
가을철 건강관리와 음식
- 28 법왕사소식**
- 30 법왕사게시판**
- 32 해오름소식**
- 33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61(서기 2017)년 11월 01일 발행 | 통권_275호 | 종무소.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모도, 영일, 상철, 자행, 자유, 강선옥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란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후손이 잘 된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훌륭한 선생 10년 교육이 부모 3년 교육만 못하고, 3년 부모 교육이 태중(胎中) 10개월 교육만 못하고, 태중 10개월 교육이 하루 밤 부모 용심(用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하루 밤 용심이란 평소의 마음가짐이자 인식상태입니다. 태교(胎教)는 본질적으로 부모의 평상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문제는 가정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국가가 발전하고 인류의 행복이 옵니다. 설혹 국가는 망해도 가정만 건전하게 살아있다면 국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지, 2,000년 만에 새 나라를 건설한 유대인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태교는 좋은 가정, 강한 국가, 행복한 인류의 주춧돌입니다. 요즘 조기교육이다, 조기유학이다 해서 자녀교육에 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자녀의 평생을 위한 투자 중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태교입니다. 과거 훌륭한 인물들은 부모가 지극정성 기도해서 낳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님, 우리나라의 자장스님, 대각국사 의천스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적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必有餘慶)’이라, 적선을 한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말처럼, 정말 훌륭한 2세를 갖기 위해서는 당대가 아닌 그 전대에서부터 공덕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

면 태교는 조상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자식을 갖게 되니 별 볼일 없는 불량품과 같은 자식을 만들기 일쑤인 것입니다. 큰 더위, 큰 비, 큰 추위, 혹 천둥 치는 날, 술 먹은 날, 상가에 갔다온 날 등을 피해야 하는데, 그에 대해 관심이 없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선천성 질병을 타고난 아이들이 늘어나고 치료하기 어려운 것은 다 그럴 만한 인과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뒤 화가 난 남편이 임신 8개월 된 아내의 머리를 잡고 뱃속에 든 아이를 없애고 이혼하겠다고 병원으로 끌고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태중에서 어떠한가요? 임신 8개월이면 다 알아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서 3개월 되었을 때부터 간질 발작을 하기 시작했고 부부는 아이에게 진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즘 낙태(落胎)를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태아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큰 업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이유 없이 반항한다면 그 원인을 잘 살펴서 참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사론(具舍論)』이란 불교경전을 보면, 우리 몸이 처음 이루어지는 생성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일정한 변화 주기를 순서대로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신체의 근원적인 최초의 이름을 ‘갈라람’이라 하고, 입태 후 첫 주 1~7일 사이의 상태를 말한다. 이때는 맑게 끓인 미음의 꺼풀처럼 끈끈하고 조금 굳어지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2주 8~14일째 ‘알부담’이라 하는데, 젓이 식을 때 표면이 약간 엉기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이다. 3주 15~21일째는 ‘폐시’라 하며, 이때는 피와 살이 엉겨서 아직 굳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4주 21~28일째는 ‘건남’이라 하며, 이때는 살이 굳어지는 과정이다. 5주 29~35일째는 ‘바라사카’라 하며, 이때부터는 눈, 귀, 손, 발 등 우리 몸의 구조가 구분지어 생기기 시작하여 38주 동안 성장한다. 가장 마지막에 영글어지는 게 눈동자이다. 그래서 정상아에 비해 조산아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어쨌든 5주째부터는 태아의 뇌가 엄마의 뇌와 직결되어 있어서, 신체적으로 진행되는 신진대사의 모든 것과 보고 듣고 느끼는 엄마의 일체 의식작용과 감각작용을 그대로 느끼므로 태교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원공당 정무대중사 열반 3주기 추모 범어집 『인생졸업장』에서

대승보살의 참된 삶 - 육바라밀(2)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부처님께서서는 인욕하는 데에도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복인(伏忍)으로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먼저 화나는 그 마음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들고 성나는 일만 참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끄는 즐거운 일도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역경을 참지 못하면 유혹이 경계에 분노가 치밀어서 투쟁하기 쉽고, 순경(順境)을 참지 못하면 유혹에 이끌려서 몸과 마음을 더럽혀 망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유순인(柔順忍)입니다. 사람이 항상 참기를 많이 하면 경계가 생길 때마다 저절로 억제가 되어, 역경이나 순경의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무생인(無生忍)입니다. 이것은 참고 견디어 보살의 지위에 오른 사람의 인욕행으로써, 인생이 무상(無常)하며 세상이 허황됨을 깨닫고, 만유제법(萬有諸法)이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에 의해 흩어지는

진리를 알고 보면 그다지 성별 것도 없고, 참을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넋째는, 적멸인(寂滅忍)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지위에 있어서와 같이 인욕행으로, 생사고해를 벗어나서 본래부터 적멸한 열반의 경지에서의 분별과 차별이 없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계는 지어서 인욕행을 닦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어떠한 분별심이나 차별상도 일으킴이 없는 경지를 가리킵니다.

‘정진(精進)’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한결 같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즉,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부적인 것이나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흔들리거나 물들이 없이 깨끗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진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몸과 입으로써 부지런히 선행을 닦고 실행하는 것과, 뜻을 항상 진리에 머물게 모든 생각이 참된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사정진(事精進)과 이정진(理精進)이 있습니다.

‘사정진’이란 육신(肉身)으로 세간(世間) 사업이든지 출세간(出世間)사업이든지 그것을 한 번 이루려고 결심했으면,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정진’이란 악한 생각을 없애고 선한 마음을 내어, 자신과 이웃에게 좋은 일이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기어이 성취하도록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을 말합

니다. 생존 경쟁이 극심한 오늘날의 현실생활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정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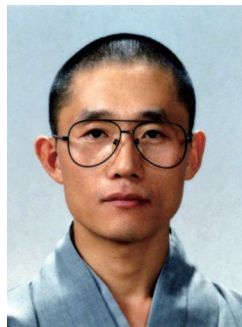
‘선정(禪定)’은 보살이 살다운 지혜를 얻어 성불하기 위하여 마음을 맑게 하고 닦는 것이며, 생각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현실생활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잡다한 생각을 쉬지 못하고 어리석게 여러 것들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생각과 나쁜 생각, 허영심, 분별심만 버리면, 이 세상이 곧 극락이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님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혜(智慧)’는 욕심과 집착을 여의고 순수하고 바른 마음으로 사물을 대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지혜행은 사물의 실상을 밝게 비추어 보아서 모든 의혹을 끊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 힘을 닦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를 ‘반야(般若)’라고도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반야’ 로써의 지혜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 율, 론의 글과 말에 의하여 진리를 알아내어, 그것에 의해 수행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상반야(實相般若)’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지혜로써 마음을 닦으면 필경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행동 조심하면 고귀한 사람 된다

본원스님 / 명상수행원



종교적인 관습은 초원에서 태동한 종교문화의 영향과 메마른 사막에서 태동한 종교문화가 서로 다른 이질적 문화권이 가지는 '문화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인명경시 풍조일 뿐인 해묵은 인습·관습조차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인권이 최상위 개념이자 과제인 개명한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반문화적인 행태로써, 이는 곧 문화·관습, 역사·풍토의 차이 이전에 또 다른 문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일신앙에 젖은 절대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의식구조 때문일 것이다.

인류문화에 걸리지듯 녹아내린 보편적, 도의적 가치관 즉 자비, 사랑, 관용을 비롯한 상생, 인화, 배품 등을 지향하는 성향의 덕목의 관점에서, 참혹한 형벌방식과 여성들이 감수해야 하는 온갖 차별과 불이익이며 바트(일명 명예살인 - 여인이 혼전 관계를 했다거나 남자와 만났다는 소문만으로 가족에게 살해되고 목인하는 관습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금식기도(라마단), 메카 성지순례(하즈) 기간 때는 수백만 마리의 양을 재물로 삼아 도살하여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동물보호단체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

만 산유국 오일달러의 힘을 믿는지 이를 내정간섭이라 하며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 점은 우리도 비슷한 처지다. 오랜 관습상 집에서 기르던 개를 보신용으로 때려 죽여 잡아먹는 한국인의 야만스런 식생활을 지적하며 80년대 유럽 나라들이 '한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였고 그러자 정부 당국에서 가축 도살행위를 제재하면서부터 비로소 마구잡이식 도살행태가 줄면서 개고기를 정력제로 알고 즐겨 잡아먹는 기세가 한풀 수그러들었다.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달

라도 모두가 공감하고 교감하는 국제적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이는 곧 전체 다수의 설득력을 전제로 하는, 이성에 기초한 합당한 사회적 통념과, 특수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그곳에 익숙해진 체질이 되어버린 문화 차이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인식·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혹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야 하는 유목 생활, 사막에서 부득이한 육식문화, 잦은 전쟁 탓에 남자들이 줄어들면서 남겨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대가족 형태로 생겨난 일부다처제며 할례의식 등이 가지는 관습은, 초원에서 태동한 종교문화의 영향과 메마른 사막에서 태동한 종교문화가 서로 다른 이질적 문화권이 가지는 ‘문화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인명경시 풍조일 뿐인 해묵은 인습·관습조차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인권이 최상위 개념이자 과제인 개명한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반문화적인 행태로써, 이는 곧 문화·관습, 역사·풍토의 차이 이전에 또 다른 문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일신앙에 젖은 절대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의식구조 때문일 것이다.

“알라를 위하여 그대들은 적대시하는 자와 싸워라. …… 그러한 자들과 마주치면 어디서든지 싸워라. …… 종교가 알라

의 것이 될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신성월(神聖月 : 금식기간 라미단, 이슬람 역 9월)에는 신성월을, 거룩한 것을, 이것이 보복이다. 누구든지 그대들에게 무법을 행하면 그대들로 상대가 한 대로 무법을 행하여라.”

〈코란〉 ‘계시편’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인지상정

인간이 지은 죄를 신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비정한 방법으로 징벌하는 이처럼 무섭고 야무진 종교사상은, 그 맥을 같이 하는 인접 중동 국가, 이스라엘(유대교)의 뿌리가 같은, 이슬람(아랍권)의 시조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그 조상이다.

야훼(하나님)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아들 이삭이 이단이니 죽이라는 계시를 받고 고뇌 끝에 신을 선택, 이삭을 죽이겠다는 절대복종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자 종이며 도구임을 뜻하는 내용이 〈창세기〉 ‘천지창조편’의 한 부분을 장식한다.

성경 〈구약성서〉 창세기를 보면 유대민족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이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자 이집트인 하녀 하가르를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다.

후에 아브라함은 부인에게서 아들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유대민족을 계승하고 이스마엘은 아랍민족의 선조가 되기에 두 민족

은 한 뿌리에서 갈라진 셈이다.

모테에서 나면서부터 무슬림(이슬람, 알라신의 복종인)이라고 할만큼 쉽없이 <코란 : 읽어야 할 책>을 암송하며 하루 다섯 차례 메카를 향해 신의 위대함을 찬양, ‘알라후 아크바라’ (신은 위대하다)를 되뇌면서 열정적으로 신앙하는 이슬람교도들이다.

폭력적 수단은 결코 용납 안돼

9·11테러는 이슬람 국가들의 단체인 아랍연맹에서조차도 배격하는 과격한 무장단체 소행일 뿐 아니라, 이슬람 교리가 폭력의 수단인 테러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처럼 극악한 테러는 대다수 이슬람 정서에 반하는 일로써, 7세기 초(622년) 아라비아 반도 동쪽 메카에서 마호메트가 창시한 이슬람(회교)은 아랍어로 평화, 안정을 뜻하고, 신의 예언자 마호메트가 알라신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모음이 이슬람의 경전 <코란>이다.

마호메트 사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모아 전체 114장으로 엮어진 <코란>을 주야로 암송하는 16억명의 무슬림이 있으며, 하나님(알라)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무력조직 ‘헤즈블라’와 ‘지하드(성전)’가 있고 일생에 한 번은 메카 순례(하나님 최후의 심판의 날, 12월 8일에서 다음해 1월 8일까지)를 가는 것이 의무이며 전 세계 이슬람이 모여드는 카바 신전에서

는 이 무렵 80만 마리의 양을 잡아 함께 나누어 먹는가 하면, 율법상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하고 바트(명예살인) 풍습은 아직도 이슬람 사회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며 그때마다 피의자는 형식에 치우친 관대한 처벌이 있을 뿐이다.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라. 불은 온갖 숲에서 일어나는 것, 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믿음이 깊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숫타니파타>

전지전능의 뜻으로 쓰이는 알라신의 ‘알라’는 유일신 하나님을 지칭으로써 유대교를 뿌리로 한 기독교와 한 조상이며 섬기는 신은 동일하되, 역사와 종교문화적 사관(史觀) 인식이 서로 다른 시각의 차이에서 빚어진 배타적 적대관계, 건원지간은 중세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인류사를 피로 물들였을 뿐만 아니라, 근세에 와서는 중동전(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의 분쟁)이나 뮌헨올림픽을 피로 얼룩지게 한 ‘검은 구월단’의 테러, 9·11만행, 이라크 전쟁,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의 분쟁·내전을 촉발시킨 그 발단이다.

<코란> ‘생활편’에서는 기독교의 중심 교리 삼위일체설을 강력히 부인하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도이며 인성을 가졌다고 하며, 마호메트와 ‘알라판’에서는 “알라 이외에는 신은 없고 알라는 천지만물을 창조한 만유의 주이다. 유일신 알라는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면 미워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만큼의 응보도 하는 신이다” 고 했다.

종교전쟁은 교세 확장이 원인

무슬림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과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용, 중도를 취하며 이해 관계가 아닌 금식을 통해 형제의 우애로서 일체감을 형성하고 라마단 기간 동안 해 뜨기 한 시간 반 전부터 해질 때까지 모든 음식을 끊고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며 소외된 이들을 위한 선행과 자선을 권장하는 공동체적인 사회를 지향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사막의 종교, 이슬람이 대외적으로 호전적 공격성향의 종교집단으로 비쳐지고 인

식됨을 역사적으로 이슬람과 기독교는 교세확장을 신이 부여한 사명으로 알고 성전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정벌과 보복을 일삼았으며, 시조가 같은 자매종교이면서도 수천년을 두고 서로 앙숙관계인 것은 <성서>와 <코란>을 근거로 한 선민의식, 즉 ‘우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우월한 민족’임을 과시하는 유일신 사상으로 무장된 지배의식 영향 때문이다.

힐라산에서 영적 체험 후, 메카에서 설교하다 혹세무민으로 몰리며 쫓겨난 마호메트는 다시 세력을 모아 베두인과 3년간 싸워 이김으로써 자신의 입지 기반을 다진다. 이처럼 칼로써 시작된 이슬람(코란 원년, 622)은, 이후 빠르게 성장하는데 그것은 본격적인 교세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무력에 의한 정복을 이슬람 세계의 이상을 추구하는 최대 가치로 삼았기 때문이다.





보살의 공덕으로 복덕과 지혜 성취한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이다. '깨달음을 구해서 수도하는 중생', '구도자', '지혜를 가진 자' 등으로 풀이된다. 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체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도록 제도하기 위해서이다.

보살은 수행의 단계에 따라 계위(階位)가 주어진다. 초발심(初發心)은 최초 단계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도(行道)는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수행하는 단계이다. 불퇴전(不退轉) 단계는 수행으로 도달한 경지에서 물러나거나 수행을 중지하는 일이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생보처(一生補處) 단계로 한 생이 끝나면 다음에는 부처가 되는 것을 말한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쌓은 선근공덕(善根功德)을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불교에서는 부처님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이다.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

범어로는 사다파리부타(Sadaparibhṭa)이며 <법화경> 제20 상불경품에 등장하는 보살이다. 줄여서 불경보살이라고도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인행을 닦을 때의 모습이다.

위음왕불(威音王佛)의 상법말(像法末)에 보살비구가 있었는데, 욕설로 꾸짖고 막대기나 기왓장 돌맹이로 때리고 하는 못된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그들을 향해 '나는 그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장차 불성을 계발해 부처님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배하였다. 그것이 인연이 되

어 '상불경'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 한다. 박해를 가한 비구와 비구니, 우바새와 우바이들은 지옥에 떨어졌는데 상불경보살의 역연(逆緣)에 의해 다시 지옥에서 인간의 세계에 태어나 성불하였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불경보살의 역연을 바탕으로 번뇌질복의 방법과 역연의 공덕을 설하였다. 천태대사의 <법화문구> 제10권에 서는 상불경을 해석하면서 '안으로는 불경(不輕)의 마음을 간직하고, 밖으로는 불경의 경계를 존경하며, 몸으로는 불경의 행을 실천하고, 입으로는 불경의 가르침을 펴며, 사람들에게는 불경의 눈매를 짓는다' 라고 하였다. 이 보살은 항상 입으로 <법화경>의

가르침을 설하고 몸으로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마음으로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다. 상불경보살은 사람들에게 불성이 갖춰져 있음을 일깨워 주는 보살이다.

범부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아니, 아무리 일러주어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상불경보살은 바로 이처럼 무지한 중생들에게 불성의 내재를 일깨워 줄 뿐 아니라 불성을 계발하면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펴는 보살이다. 본래 상불경보살은 <법화경>을 비롯하여 어떠한 경전도 외우거나 읽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예배만 행할 뿐이었다고 한다.

향왕보살(香王菩薩)

범어로는 간다라자(Gandha-rajā)이며 건타라자라고 음역한다. 이 향왕보살은 향왕관음(香王觀音)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 보살의 설법의 향기가 온누리에 두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왕이 그 국토에서 가장 자재한 것처럼 이 보살은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 온 범계에 자재하다는 것을 뜻한다. 관음보살의 부속보살이다.

<향왕보살다라니주경>에 의하면 이 보살의 탱화는 크게 하거나 작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 몸의 살결은 우유빛이고 얼굴 모습은 매우 단정하며, 머리에는 천관(天冠)을 쓰고 목에는 영락(瓔珞)을 걸었다. 팔은 아



래로 드리우고 다섯 손가락을 모두 뿔으니 이는 시무외인(施無畏印)이다. 그 다섯 손가락 끝에서는 각기 감로수가 흘러나와 천상을 제외한 오도중생(五道衆生)에게 시여하고 손 아래에 흑귀(黑鬼)를 위무하고 있다.

왼팔은 팔꿈치를 굽힌 채 손에 연꽃을 들어 가슴 앞에 안치하였는데 이 연꽃은 이 보살이 앉아 있는 연화대에서 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 향왕보살이 깔고 앉은 좌대는 살아 있는 연꽃좌이다. 목 뒤 원광이 있고 위에는 산개가 있다. 오색이 찬란한 비단으로 의복을 삼았는데 겹친 옷자락이 어깨 위로 연결되었으며 한 가닥은 붉은색이고 다른 한 가닥은 황색이다.

만일 어떤 구도자가 증익(增益)을 원하거

나 혹 죄의 소멸을 원하면 이 보살을 본존으로 받들어 수행하는 법은 반드시 향왕보살법에 합당하게 해야 한다.

수법(修法)할 때는 이 향왕보살 앞에 네치의 방단(方壇)을 설치하고 꽃이나 향을 공양해야 한다. 그리고 기름으로 등을 사르고 한밤중에 일어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향왕보살다라니주를 1,008편 지송한다. 만일 새벽이 오기까지 즐기나 잠자지 아니하고 오로지 일념으로 이 향왕보살다라니주를 지송할 수만 있다면 복덕과 지혜를 비롯하여 구하는 바 모든 소원들이 원만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한다.

이 <향왕보살다라니주경>은 고려대장경이 바탕이 되어 신수대장경에도 실려 있는데 우선 이 다라니를 10만 편 지심으로 지송한 뒤에 다라니지송의궤에 따라 단을 차리고 지송하라고 한다.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

범어로는 아카사가르바(Akasagarbha)이며, 혹은 가가나가르바(Gag-anagarbha)라고도 한다. 번역하여 허공장 또는 허공잉(虛空孕)이라고도 한다. 허공장보살은 서방으로 80억 향하사 수의 세계를 지나 ‘일체향집’이란 불국토가 있고 거기에 승화부장불(勝華敷藏佛)이 계시는데 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보살이다.

<허공장보살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



고 있다. 이 보살이 모든 삼매를 구족함은 큰 바다와 같고 계법을 이룩함은 수미산과 같으며 인욕하는 마음은 금강과 같고 진정한 용맹은 질풍과 같으며 지혜는 허공처럼 광범위하고 향하사의 모래와 같다. 여러 보살 가운데 홀로 뛰어남은 큰 당기(幢)와 같고 열반의 길을 향해 나아감은 위대한 도사(導師)와 같으며 빈궁한 자에게는 감로수를 준다. 선근을 지팡이로 삼아 열반의 다리를 밟고 해탈을 사다리삼아 생사의 배를 건너며 모든 이교도를 굴복시키는 사자와 같고 더러운 소견을 씻어 버림은 우수(雨水)와 같으며 번뇌의 적을 부숴버림은벼락과 같다.

이 보살은 또한 승화부장불의 위신력을

빌어 사바세계를 정토로 변하게 하고 일체 대중의 두 손에 여의마니(如意摩尼)를 주어 갖가지 보물이 비 오듯 내리게 하며 병을 제거하고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모든 다라니를 설하는 보살이다. 따라서 이 보살을 생각하면 큰 힘을 얻어 모든 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보살이 갖는 공능은 허공처럼 광대무변한 자비와 지혜일 것이다. 선악의 행을 나타냄은 밝은 거울과 같고 부끄러움 이는 자를 덮어준은 훌륭한 옷과 같으며 질병에 신음하는 자에게 훌륭한 의사가 되고 더위에 시달리는 자에게 시원한 바람과 같다는 것이다.

허공장보살에는 오대허공장(五大虛空藏)이 있는데 중앙의 법계허공장, 동방의 금강허공장, 남방의 보광허공장, 서방의 연화허공장, 북방의 업용허공장이 있으며 형상도 일정하지 않다.

풍재보살(豐財菩薩)

범어로는 보가바티(Bhagavati)이며 자재주보살(資財主菩薩)이라고도 한다. 중생은 지혜만으로도 원만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지만 복덕만으로도 원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 가장 원만한 삶이란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여야 한다. 이 풍재보살은 복덕과 지혜를 고루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보살이다. <대일경소> 제16에 의하면 ‘명비(明妃) 자재

주(資財主)는 능히 자재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시여하는 보살이다’라고 하고 있다. <태장계만다라존위현도초사> 제2에도 ‘오른쪽의 활짝 핀 연꽃은 불과(佛果)의 지혜이기 때문에 재물을 상징하고 왼쪽의 봉오리진 연꽃은 중생의 심지(心地)에 부처님의 종자를 함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의당 풍부할 수밖에 없다. 두 송이의 연꽃은 복과 지혜의 상징이다. 어깨 위에 연꽃을 걸쳐 놓은 것은 곧 법계에 시여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한다.

복덕(재물)과 지혜를 함께 갖춘 분을 양족존(兩足尊)이라고 한다. 밀호는 여의금강(如意金剛)이며 종자는 사(sa), 삼매야행은 두 줄기 연꽃이다. 형상은 몸의 살결은 희고 왼손에는 활짝 핀 한 송이의 연꽃과 아직 피지 않은 연꽃 세 송이를 함께 지니되 활짝 핀 연꽃은 오른쪽 어깨 위에 걸치고 봉오리 연꽃은 왼쪽 어깨에 걸쳐 놓는다. 오른손은 팔을 약간 구부리되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한다. 무명지와 소지를 구부려 어깨 앞에 들고 있으며 붉은 연꽃좌에 모습으로 한다. 밀호가 ‘여의금강’이듯이 모든 원하는 바를 원만하게 성취시키는 보살이다.



수행의 터전이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공간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은 고구려 소수림왕이 375년에 지은 초문사(肖門寺)라고 한다. 또 같은 시기에 아도 화상을 위해 지은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시작으로 수많은 사찰이 우리나라 곳곳에 지어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월만큼 사찰의 모습도 변화했지만 보통 우리나라 사찰은 일주문(一柱門), 천왕문(天王門), 불이문(不二門), 전각(殿閣), 선원(禪院), 강원(講院), 율원(律院), 요사채, 후원(後院), 해우소(解憂所) 등으로 되어 있다.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은 사찰 입구에 있는 문이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모셔진 곳들은 전(殿)이라 하고, 산신 등을 모신 건물은 각(閣)이라 한다.



직지사 일주문

산문(山門)

사찰은 거룩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청정하고도 장엄한 곳이며 스님들이 머물면서 수행하는 터전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닦고 올바른 삶을 다짐하는 곳도 여기며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의 주요 공간도 이곳이다. 사찰의 중심인 큰 법당에 들어서려면 산문(山門), 일주문(一柱門), 금강문(金剛門), 천왕문(天王門), 해탈문(解脫門)을 지나야 하는데, 이러한 문들을 일컬어 산문(山門)이라 한다. 하지만, 일주문 앞에 별도의 산문(山門)을 통상 세우기도 한다. 산문은 승가와 속가의 경계이며, 청정한 수행공간인 사찰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직지사 등 대찰에 가보면 일주



쌍계사 천왕문

문 가기 전에 사찰 초입에 큰 문이 있는데, 이것이 산문이다.

일주문(一柱門)

통상 사찰 입구에 들어서는 첫 번째 문(門)이다. 문의 기둥이 한 줄로 늘어서 있는 데서 유래한 명칭으로, 한 곳으로 마음을 모으는 일심(一心)을 뜻한다. 사찰의 입구에 일주문을 세운 것은 신성한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속의 번뇌를 깨끗이 씻어내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리의 세계로 향(向)하라는 뜻에서이다.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불도를 닦는 사람은 지극한 일심으로 부처와 진리를 생각하면서 일주문을 지나야 한다고 한다.

천왕문(天王門)

일주문을 지나면 천왕문이 나타난다. 천왕문은 부처님과 불법과 스님과 불자들을 수

호하는 사천왕(四天王)을 모신 건물이다. 천왕문은 외부의 악한 기운이나 침입자로부터 사찰을 보호하여 청정도량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사천왕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서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동방 지국천왕, 남방 증장천왕, 서방 광목천왕, 북방 다문천왕이 그것이다. 증장천왕(增長天王)은 용(龍), 지국천왕(持國天王)은 검(劍), 다문천왕(多聞天王)은 비파(琵琶), 광목천왕(廣目天王)은 탑(塔)을 들고 있다. 사천왕을 사대천왕(四大天王), 호세사천왕(護世四天王)이라고도 한다. 육계육천(欲界六天)의 최하위를 차지한다. 수미산 정상 중 양부에 있는 제석천(帝釋天)을 섬기며, 불법(佛法)뿐 아니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수호하는 호법신이다.

금강문(金剛門)

천왕문의 좌우측 대문에는 금강역사(金剛

力土)가 그려져 있다. 금강역사는 코끼리보다 수십배 이상의 엄청난 힘을 소유한 천하장사로, 이 강력한 힘으로 사찰을 수호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그래서 금강문이라는 별도의 문을 갖춘 사찰도 있는데, 이곳에는 금강역사가 조각이나 그림으로 조성되어 있다. 좌우측에 밀적금강과 나라연금강이 모셔져 있다.

불이문(不二門)

천왕문을 지나 길을 오르면 다시 불이문(不二門)이 나타난다. 이 문은 번뇌의 속된 마음을 돌려서 해탈의 세계에 이르게 한다 하여 ‘해탈문(解脫門)’이라고도 하며, 궁극적

으로 번뇌와 해탈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문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탈문은 누각 밑을 통과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2층의 다락집 형태인 누각 밑 1층 기둥 사이로 길이 나 있어 문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층 누각은 불법을 설하는 강당으로 쓰여 왔다. 그래서 진입하는 쪽에서 보면 문이요 진입하고 난 뒤 법당 쪽에서 보면 누각으로 다가온다. 해탈문을 지나면 보체루 또는 만세루가 있으며, 이를 지나면 절마당을 만나고, 바로 대웅전이나 대적광전 같은 사찰의 중심 법당이 보인다.

길상사 범종각





법주사 대웅보전

종각(鍾閣)

종을 매달아 놓은 곳으로 종루(鍾樓)라 부르기도 하며, 북을 매단 곳을 고루(鼓樓) 또는 고각(鼓樓)이라 하지만 대개 절의 사물(四物) 즉, 범종(梵鐘), 법고(法鼓), 운판(雲版), 목어(木魚)가 함께 안치되어 있어 통칭하여 종각(鍾閣) 또는 범종각(梵鍾閣)이라 부른다.

대웅전(大雄殿)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봉안한 전각으로 대웅이란 말의 뜻은 인도의 옛말 마하비라를 한역한 것으로 법화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대한 영웅, 즉 대웅이라 일컫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즉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큰 힘이 있어 마군의 온갖 장애를 극복하고 부처님이 되었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

님의 손 모양(수인 : 手印)은 오른손을 무릎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으로 마군을 항복받았던 모습을 나타낸다. 협시보살로는 문수보살(文殊菩薩)과 보현보살(普賢菩薩)이 모셔져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왼쪽에 모셔진 분이 문수보살로 부처님의 지혜(智慧)를 상징하는데 여의주나 칼, 청련화(靑蓮花)를 들거나 청사자를 탄 모습으로 표현된다. 또 보현보살은 오른쪽에서 부처님을 모시며 부처님의 행위를 상징한다. 흔히 연꽃을 들고 코끼리를 탄 모습으로 나타낸다. 대웅전은 법화천태종의 금당이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법화계통의 진통이 남아 있는 사원에서 주불전으로 사용했다. 불국사 대웅전, 통도사 대웅전, 쌍계사, 관룡사 대웅전 등 많은 걸작들이 남아 있다. 대웅전은 대웅보전 또는 금당(金堂)이라고 하기도 한다.



월정사 적광전

문수보살의 성산 강원도 평창 오대산 월정사

오대산의 정기를 가득 품은 월정사는 울창한 침엽수림에 둘러싸인 고즈넉한 사찰이다. 월정사는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중국으로 유학을 간 자장 율사는 산서성 오대산 태화지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한다. 이때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를 전해주면서 신라에도 오대산을 찾으라는 가르침을 주게 된다. 귀국 후 강원도에서 오대산을 찾아 월정사를 창건하고 오대 중 중대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을 조성하게 된다.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성산(聖山)으로, 산 전체가 불교성지이다. 오대산은 높이가 1,563m로 5개의 봉우리와 5개의 암자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월정사 전나무 숲길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月精寺)는 신라 때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643년(선덕여왕 12)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문수보살의 감응으로 얻은 부처님 사리와 대장경 일부를 가지고 돌아와서 통도사와 함께 이 절을 창건했다고 한다.

《사적기》에 의하면 고려 1307년(충렬왕 33)에 큰 불이 일어나 전각들이 불타버렸으나 이일(而)스님이 중창했으며 조선 1606년(선조 39)에 오대산사고를 중대 남쪽 효령봉 아래 세우고 월정사에서 수호하도록 했다고 한다. 1833년(순조 33)에 다시 화재로 전소된 것을 순조가 공명첩 4백장을 내려주

어 범당, 어실각, 대루각, 요사채를 모두 복원하고 1844년(헌종 10) 영담, 정암스님이 앞장서서 중건하여 대사찰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했다.

그러나 1·4후퇴 때, 군사작전상의 이유로 아군에 의해 칠불보전을 비롯하여 10여채의 건물이 전소되고 오대산에 있는 암자들도 불에 타면서 월정사는 창건 이래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때 양양군 서면 선림원지에서 출토되어 이 절에서 보관하고 있던 통일신라시대의 선림원지 동종(804년)도 함께 불타 녹아버렸다.

이후 탄허스님이 주석하면서 1969년 적광전을, 1971년 관음암을 중건하고 탄허스

님의 제자 만화스님과 현해스님 등이 중건에 박차를 가해 지금의 사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중요문화재로는 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과 그 앞에 있는 석조보살좌상(보물 제139호), 세조가 친필로 쓴 오대산상원사 중창권선문(보물 제140호) 등이 있다.

월정사의 본당인 적광전의 앞뜰 중앙에서 조금 비껴난 자리에 서 있는 팔각구층석탑은 고려시대 초기인 10세기경의 작품이다. 팔각구층석탑은 높이 15.2m로 우리나라의 팔각석탑으로는 가장 크다.



팔각구층석탑

팔각구층석탑은 연꽃무늬로 치장한 이층기단과 균등하고 우아한 조형미를 갖춘 탑신 그리고 완벽한 형태의 금동장식으로 장엄한 상륜부 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뛰어난 석탑이다. 이 탑은 전체를 화강암으로 조성하고 상륜부에 일부 금동장식을 더하였는데 여러 차례의 화재로 손상을 입은 부분이 더러 있으나 현재 일부가 보수되었으며, 특히 상륜부는 본래의 형태 그대로 남아있다.

1970년 해체보수를 통하여 1층, 2층, 6층, 9층을 새 돌로 갈았으며 당시에 1층과 5층에서 총 12점의 사리구가 발견되었다. 은제의 불상 1구와 4점의 청동 거울, 금동 향합과 향주머니, 진신사리경 등 총 12점의 유물들은 2003년 6월 보물로 일괄 지정되었다.

보물 제139호인 석조보살좌상은 전체 높이가 1.8m이다. 석조보살좌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팔각구층석탑 앞에서 탑을 향하여 오른쪽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공양을 드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 입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보살상을 일명 약왕보살(藥王菩薩)이라고도 한다.

강원도 일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형태로 조성된 이 보살상은 턱이 약간 길고 눈두덩이가 두껍고 뺨은 도톰하며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고 있어 복스럽게 느껴진다. 2000년 8월 보수공사 때 지하 1m 아래에서



석조보살좌상

탑의 기반부로 보이는 또 하나의 유구가 발견되어 학계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밖에도 월정사의 보물 및 유물을 모아 놓은 보장각에는 소형 목조탑을 비롯하여 경전·인도불상·불화 등이 소장되어 있다.

월정사 일주문부터 월정사 입구까지 1,700여 그루의 전나무로 이루어진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우리나라 3대 전나무숲길 중 하나이다. 특히 가을이면 전나무숲길 역시

곳곳에 붉은색, 노란색으로 물든 단풍들이 자태를 뽐내며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맛볼 수 있다. 전나무숲을 따라 북쪽으로 동대의 관음암을 지나 5km가량 올라가면 길 서쪽에 사적 제37호인 오대산사고지(五臺山史庫址)가 있다. 사고는 <조선왕조실록> 중 ‘태조실록’부터 ‘명조실록’까지의 실록 교정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세워졌다. 하지만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 이 책들을 도쿄대학 도서관으로 가져갔는데 1923년 관동대지진로 거의 불탔다고 한다.

적멸보궁(寂滅寶宮)은 중대의 사자암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석가모니의 머리뼈 사리를 모신 곳으로 유명하다. 서대의 수정암에는 한강의 원천이라고 하는 네모난 돌우물로 된 우통수(于筒水)라는 샘물이 있다.



찾아가는 길



중앙고속도로 만종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로 갈아 탄다. 진부나들목에서 빠져나와 1.5km쯤 가다 좌회전해서 gau삼거리로 간다. gau삼거리에서 직진하다 월정삼거리에서 또 다시 좌회전해 병안삼거리까지 간다. 병안삼거리에서 직진하면 오대산국립공원과 월정사가 나온다.

가을철 건강관리와 음식



환절기인 요즘 비염, 감기, 안구건조증 등 가을 계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아무래도 낮과 밤의 일교차도 크고, 공기의 질도 다르고, 특히 면역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명절 후유증 등으로 인한 피로누적이 점점 면역력을 약하게 해서 대상포진의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병과 증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환절기, 가을철 건강의 관리 방법과 제철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환절기 질환의 종류

01

감기예방 - 겉옷 준비

환절기에 감기에 쉽게 걸리는 이유는 큰 일교차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낮은 아직 더워 신체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02

목이 까칠하거나, 안구건조증 - 물을 많이 마시기, 눈 관리하기

환절기에는 건조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목이 조금 건조해져서 까칠해지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물, 음료를 수시로 마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가을 우울증 -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가을에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여름보다 가을에는 햇빛을 받는 양이 줄어들면서 멜라토닌이 적게 분비되어 몸의 활성화를 낮게 만들고, 졸음이 오고, 피곤한 등의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04

알레르기성 비염 - 원인 파악과 제거

특정 물질(항원)이 코 점막이 자극했을 때 생기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계절에 관련 없이 발생하는 통년성 비염과 계절성 비염으로 구분됩니다. 통년성 비염에 속하는 항원에는 집먼지 진드기, 곰팡이, 동물의 털 등이 있으며, 계절성 비염에는 봄·가을에 날리는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려면 우선 자신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를 피해야 하는데 물론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할수록 비염 증상이 심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집먼지 진드기가 항원이라면 이불이나 베개 등의 침구류를 자주 햇빛에 말려 일광 소독하는 것이 필요하며 먼지가 많이 묻는 카펫은 가급적 집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꽃가루나 먼지 등이 많이 날리는 때 외출시에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코나 입을 깨끗이 세척해야 하고 동물 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면 애완동물을 가까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좋은 가을음식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지금, 가을철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힘써야 하는데요. 큰 폭의 일교차로 감기나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여 주는 가을 제철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01

싱싱한 해산물로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자!



대표적인 가을 해산물은 ‘집 나간 머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로, 가을 제철을 맞아 오동통해진 전어는 약 25%가 단백질로 이루어진 ‘고단백 가을 해산물’입니다. 전어에는 두뇌와 간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과 핵산 성분뿐만 아니라 비타민 B와 D도 풍부해 피부미용에도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전어 뼈에는 칼슘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니 되도록 뼈째 드시길 추천합니다.

가을철 통통하게 살이 차 오른 수계는 달달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인데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은 꽃게는 필수아미노산이 가득해 성장기 아이의 영양 보충과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해산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체내 면역기능을 높여 주는 NK세포를 활성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어는 나트륨을 배출하고, 고혈압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불포화지방산인 EP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하고, 바다의 한우라고 불리는 굴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평소 어지러움이 많은 빈혈환자들에게 좋습니다.

02

가을 과일에는 몸에 좋은 비타민과 영양소가 한 가득!

흔히 ‘여성의 과일’이라고도 불리는 석류는 비타민 A부터 E까지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양귀비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라는 매일 석류를 반쪽씩 챙겨 먹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듯 석류는 노화방지와 피



부미용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또 석류에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피토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해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과일로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열량도 100g당 67kcal 정도로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 과일로도 제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석류는 녹차나 적포도주보다 약 3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덕분에 석류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체내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입 안 가득 채우는 시원하고 달콤한 과즙이 일품인 배는 기관지에 좋은 과일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많은 가수들이 목 관리를 위해 배즙을 애용한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배의 루티올린성분이 기침과 가래, 기관지 치료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배는 심해지는 일교차로 부쩍 갈갈해진 기관지를 다스리는데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다양한 재료들이 제철을 맞이하는 가운데, 가을 과일은 맛도 모양도 일품인데요, 큰 폭의 일교차로 감기 환자가 속출하는 요즘, 비타민 가득한 가을과일로 건강 관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03

건강에 좋은 가을 제철 식품 - '콩, 버섯, 깨, 고구마'



콩은 단백질 공급원이며, 비타민과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암과 당뇨병에 효과가 있으며 피로회복 및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빈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버섯은 변비와 당뇨, 대장암을 예방해주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며, 마른 표고버섯이나 목이버섯 불린 물을 조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깨는 식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며 체내의 콜레스테롤 제거 및 지방 분해 촉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아 다이어트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카로틴이 함유되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암과 노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법왕사 소식

가을맞이 도량정비 실시



법왕사에서 가을을 맞이하여 도량 안팎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하여 한층 더 말끔해진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여름철 무성했던 나뭇가지들을 전정하고 옷자란 잔디를 깎아 정갈하고 여법한 도량환경을 만드는 한편, 뒷밭에는 무와 배추를 탐스럽게 길러서 겨울철 김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삼신불 좌대 봉안법회 봉행



법왕사에서 10월 19일 대적광전 삼신불의 좌대를 봉안하는 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삼신불 좌대는 수차례의 옷칠을 거쳐 불상의 위엄에 걸맞는 장엄한 규모로 대적광전을 더욱 여법한 도량으로 만들 것입니다. 한편 현재 개금불사를 하고 있는 삼신불은 11월 18일 복장물 봉안불사에 이어 12월 22일 점안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삼신불 봉안을 앞두고 복장물을 접수하고 있으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추석 합동차례 회향

법왕사에서 지난 10월 4일 추석을 맞이하여 합동차례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합동차례에는 2백여 불자들이 접수하여 여법하게 불교식 차례를 올렸습니다. 추석 합동차례는 집에서 차례를 모실 수 없는 불자나 특별히 불교식으로 차례를 올리고 싶어 하는 불자들을 위해 절에서 모든 음식을 마련하여 불교식으로 여법하게 봉행하는 것으로 명절은 물론 조상 영가천도에도 큰 도움이 되니 앞으로도 추석과 설 합동차례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6주기 추모 다례재 봉행



법왕사 회주 원공당 정무 대종사 6주기를 맞은 지난 10월 22일(음 9월 3일) 법왕사 대적광전에서는 생전에 감로법문을 내리셨고 우리 불자들을 이끌어 주셨던 큰스님의 유덕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추모 다례재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다례재에는 평소 스님의 법문에 감화된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여 스님을 추억하면서 가르침을 이어가겠다는 다짐도 함께 하였습니다.

2018년 수능 7일 기도 입재

법왕사에서 2018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고득점을 기원하는 7일 관음기도를 오는 11월 10일 입재하여 수능 일인 16일에 회향합니다. 이번 7일 기도는 지난 8월 9

일 입재한 100일 기도와 21일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수험생과 부모 불자들을 위하여 봉행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16일 수능일까지 7일 동안 응맹정진 기도를 올립니다. 올해 수험생을 둔 불자님들은 영험 있는 기도 도량인 법왕사에서 7일 동안 관음기도를 정성껏 올리고 불보살님의 가피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중앙절 합동차례 회향



법왕사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중앙절(음력 9월 9일)을 맞이하여 합동차례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합동차례에는 1백여 불자들이 접수하여 여법하게 불교식 차례를 올렸습니다. 중앙절은 음력 8월 15일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는 집안에서 올리는 차례로 예로부터 몇몇 가문에서는 추석 대신 차례를 올리는 날로 정해 내려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음력 9월 9일은 양의 기운이 겹치는 날로써 중요한 절기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봉정암 적멸보궁 순례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1백여 불자들이 2박3일 일정으로 설악산 봉정암 적멸보궁 순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른 시기에 봉정암을 참배하는 공덕은 실로 무량하다 할 것입니다. 봉정암은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도량이기도 합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생전에 한번씩 참배하고 싶어 하는 기도처로 법왕사에서는 매년 참배를 하고 있으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에서는 불자 여러분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구독 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구독료는 사보 제작은 물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활용되는 등 큰 공덕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익는 법왕사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 법왕사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 편집실



새로 오신 법우님

박건우 이평기 고선순

사보도움 주신 분

최태희 300부 조월포 400부 노기주 300부
 이세정 200부 나채준 500부 김분용 50부
 김임태 50부 정연국 50부 이재학 50부
 김재현 100부 일심회 300부 관음회 200부
 신장희 300부 장백련화 50부 이보련화 50부
 백대행심 50부 윤건불심 100부 전대원화 200부
 흥공덕심 600부 요양원일동 300부
 프린스관광 100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공양 올린신 분

◎ 공양미 올린신 분

이세정 김수종 제갈욱 심보현 황보일
 신현채 장미아 신현중 김외환 김태영
 김임태 정순덕 성 윤 사공순욱
 이수월심 세림P&R(주)

◎ 떡공양 올린신 분

양문갑 양영갑 양봉훈 양봉률 김봉원
 김호연 김임태 김현주 이정자 부창떡집

◎ 중앙절 떡공양 올린신 분

김혜진 김호연 신명균

◎ 과일공양 올린신 분

양문갑 양영갑 이임섭 안효창 미래관광

◎ 물품 보시하신 분

이영석 김상한 양지영(휴지) 박말순(장독)
 신현수(음료) 심진농산(마늘) 구실상화(불기)

◎ 법공양 올린신 분

김도심화(가정보감 100권)

◎ 승복 보시하신 분

신재호 김현주 조광호 지장회 박경란

◎ 돼지저금통 회향하신 분

오창혁 오재대 오견덕화

◎ 추석 합동차레 공양 올린신 분

김호연 김복남 김태남 박영민 김춘자
 김혜진 제갈욱 이기창 최옥분 박희수

◎ 원공당 정무대종사 다례제 공양 올린신 분

정연국 배해동 김정석 이재욱 구실상화

◎ 봉정암 순례 공양 올린신 분

도경식 이정현 강선옥 임미성 이상원
 강유미 김정남 우연희 류윤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불사 올린신 분

◎ CMS 불사하신 분(9/16~10/25)

강유주 1만원 나형진 2만원 이호진 1만원
 강창현 2만원 류윤희 1.5만원 장명희 5천원
 강창현 8만원 서필희 1만원 장미아 4천원
 강춘희 2만원 성점순 1만원 전성복 1만원
 김관용 5천원 손동림 5천원 전재필 5천원
 김명선 2.5만원 손향숙 2만원 전태일 5만원
 김명숙 1.5만원 송순분 2만원 정성희 2만원
 김성미 5천원 송윤선 7만원 정연이 8천원
 김성자 1만원 신인숙 5천원 정옥선 1만원
 김수라 3만원 신정옥 4.5만원 정재순 3만원
 김연자 1만원 심규암 1.8만원 조희선 2만원
 김옥자 1만원 심영선 1.5만원 최승임 1만원
 김정옥 1만원 오재대 1만원 최인경 1만원
 김제순 1만원 오창혁 1만원 최진석 5천원
 김현숙 8천원 이숙희 2만원 한천숙 1만원

홍경숙 1만원 황국희 2.5만원 황덕선 5천원
황국희 2.5만원 황금석 7천원

◎ 삼신불 좌대 불사하신 분

이호형 이재욱

◎ 삼신불 개금 불사하신 분

남창형 남학형 이재학 권택훈 김판돈
정용진 권기욱 권민교 김태우 이정옥
권순표 박종성 자장회 이동학 강유미
박영승 이지영 신종호 이지선 천종철
이지현 김순자 이준호 이승재 장용선
정춘화 여택동 박경민 박성필 이정호
이희로 권정하 이영호 권주영 이태화
이준목 박정순 김성훈 조용호 권금강행
박무착십

◎ 삼신불 금란가사 불사하신 분

이희동 고선순 권지현 권도형 심규암
이상봉 이임섭 김중환 이영란 김근태
김민정 박동근 황미선 박준범 박준용
이효경 김정현 황청순 김태훈 이진주
김진주 김지민 이병노 이혜경

◎ 부처님 복장물 불사하신 분

이동학 김기호 임충옥 김경원 김은서
김건호 김봉원 이복희 김정미 김정옥
양문갑 황춘연 양봉를 임재형 양지영
양영갑 권귀정 양혜진 양봉를 이종량
이정자 이병희 이진희 배해동 유나겸
권민서 박해진 박종성 추순인 이수경
임상덕 김혜정 권영진 이경한 수경문
남창형 남학형 박무착십

◎ 삼신불 복장물(금보석) 불사하신 분

박종환 서명진 류문주 서진호 강현성
서경아 강경근 강지웅 강자백 서금자
강유미 박정순 윤영숙 이호영 이정화
이영삼 권영진 박진오

◎ 오백나한 불사하신 분

113 정혜은 114 박종철 115 권태형 119 최정미

◎ 만불전 1인1원불 봉안하신 분

3559 ㄸ백주예 3560 ㄸ이분상

◎ 일년등 올린 분

788 신현식

◎ 산신단 인등 올린 분

285 이평기 284 최서형

◎ 본당 인등 올린 분

344 차순연

◎ 인등 올린 분

440 황후성 441 이가경 442 황명하
443 이강호 444 이지혜 445 홍애분

◎ 영가등 올린 분

142 석중세

왕생극락하옵소서

- ◆ ㄸ김경순 영가의 초재가 10월 8일에 있었습니다.
 - ◆ ㄸ강귀조 영가의 기제사가 10월 11일에 있었습니다.
 - ◆ 최재훈 법우님의 선망부모영가 천도재가 10월 13일에 있었습니다.
 - ◆ ㄸ이분상 영가의 초재가 10월 13일에 있었습니다.
 - ◆ ㄸ박옥기 영가의 초재가 10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 ㄸ박잠수 영가의 초재가 10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 ㄸ백상흥 영가의 기제사가 10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ㄸ김태남 영가의 막재가 10월 17일에 있었습니다.
 - ◆ ㄸ홍지상 영가의 초재가 10월 21일에 있었습니다.
 - ◆ ㄸ손혜선 영가의 막재가 10월 29일에 있었습니다.
 - ◆ ㄸ고태선 영가의 기제사가 10월 29일에 있었습니다.
 - ◆ ㄸ고영숙 영가의 기제사가 10월 31일에 있었습니다.
-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해오름 요양원 10월 소식



수성못 나들이

써포터즈 봉사단과의 교류를 통해 주말을 이용하여 날씨도 쾌청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가까운 수성못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바람과 햇볕이 적당하여 어르신들이 산책하기에 딱 좋은 주말입니다. 외부활동을 통해 사회성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어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봉사자분들 감사합니다.~



색소폰 공연

새로운 봉사자분들이 본 요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 봉사자들은 색소폰과 노래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색소폰 공연을 관람하신 어르신들은 새로운 악기 연주를 신기해하시며 직접 노래도 하시고 춤도 추시며 흥겨운 오후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매달 방문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급상황 대응 교육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상황에 대해 대응교육을 본 요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앞선 케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전 직원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여 한결 같은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소방교육

화재예방과 화재 시 빠른 신고와 대피 및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본 요양원에서는 직원대상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특별히 상동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시행함으로써 더 생동감 있고 피부에 와 닿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소방안전예방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약속드립니다.

- | 개인 정기봉사자 | 안수정, 이경희, 손미령, 이수정, 배영숙(웃음치료), 윤수빈, 강진주, 윤성덕, 문자영(이미용)
- | 단체 정기봉사자 |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최단장공연단(공연활동), 써포터즈(아외나들이), 친한친구(놀이치료), 행복한교육이야기(놀이치료), 어린왕자(놀이치료), 그루터기(놀이치료), 오키리나공연단(공연활동), 하모니카공연단(공연활동)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9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강병철 1만원	김수자 1만원	류윤만 1만원	성인자 1만원	이석규 5만원	정무시 1만원
강선옥 5만원	김숙희 1만원	류훈자(지일) 5천원	손수연 1만원	이상환 5천원	정미화 1만원
강소남 5천원	김순덕 1만원	문성섭 1만원	송민경 1만원	이승환 5천원	정민경 1만원
강영도 2만원	김순연 5천원	박경란 1만원	송정숙 5천원	이옥자 1만원	정숙자 1만원
고연숙 1만원	김순태 1만원	박경자 5천원	시명숙 1만원	이용옥 1만원	정시영 1만원
고재옥 2만원	김양순 1만원	박귀분 1만원	신구자 5천원	이유태 1만원	정연이 5천원
구정대 2만원	김영호 1만원	박남희 3만원	신통식 1만원	이인순 5천원	정옥선 1만원
권순득 1만원	김영희 5천원	박대희 5천원	신임선 5천원	이임숙 2만원	정옥수 5천원
권순미 1만원	김옥희 5천원	박동규 5천원	신종호 5천원	이재봉 5천원	정인순 5천원
권순영 1만원	김외환 1만원	박상용 5천원	신홍준 1만원	이전희 5천원	정태교 5천원
권순칠 1만원	김용태 1만원	박성숙 5천원	신화식 1만원	이점에 2만원	정혜숙 1만원
권영철 5천원	김우영 1만원	박성용 5천원	심규암 5천원	이정숙 2만원	조규인 1만원
권오관 2만원	김원형 3만원	박성은 5천원	안경순 1만원	이정연 5천원	조성자 5천원
권오국 1만원	김의목 1만원	박성후 2만원	안명희 1만원	이정옥 1만원	조영석 1만원
권춘자 3만원	김정규 5천원	박수진 1만원	안희선 1만원	이정화 1만원	조영주 1만원
금명섭 5천원	김정숙 5천원	박순남 5천원	양나영 5천원	이정희 3만원	조정자 5천원
김경자 1만원	김정숙 5천원	박순영 5천원	양봉를 1만원	이정희 5천원	진봉희 1만원
김경호 1만원	김정순 3만원	박원태 1.5만원	양지영 1만원	이종희 5천원	채옥연 5천원
김기덕 2만원	김정자 5천원	박인철 1만원	양혜진 1만원	이준우 5천원	최분규 1만원
김기수 2만원	김주현 1만원	박종규 1만원	양희숙 1만원	이창수 1만원	최승임 1만원
김대현 5천원	김진성 1만원	박종환 1만원	여택동 5천원	이재원 1만원	최영희 1만원
김만기 5천원	김진현 1만원	박치민 5천원	오난옥 5천원	이현옥 1만원	최윤희 5천원
김명숙 1만원	김진현 1만원	박희조 5천원	용마관음사 3만원	이호동 5천원	최창숙 5천원
김명옥 1만원	김진현 2만원	반룡사 1만원	우정미 1만원	이효조 1만원	한규매 1만원
김미정 1만원	김진현 5만원	배수현 2만원	유경희 1만원	임상덕 1만원	한희록 1만원
김미희 1만원	김진현 5천원	배하수 1만원	유명옥 1만원	장성규 5천원	허유미 5천원
김민주 1만원	남기웅 1만원	사공관 2만원	이경자 1만원	장수정 1만원	홍기학 1만원
김봉숙 5천원	노귀자 5천원	서동남 1만원	이남희 1만원	장시원 1만원	홍애분 2만원
김성의 1만원	노수정 1만원	서찬수 1만원	이명숙 1만원	장우성 1만원	황미선 2만원
김수곤 5천원	도순자 1만원	서치경 1만원	이명희 1만원	장재혁 5천원	황준원 1만원
김수라 1만원	도화순 5천원	성기옥 1만원	이병노 1만원	장찬규 5천원	황지영 1만원
			이병희 1만원	정경석 2만원	황학영 1만원
			이복희 1만원	정경숙 1만원	
			이상혁 1만원	정명선 2만원	

총합계 : 2,045,000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박상규(도경) 50,000원 강미경 10,000원

◎ 지출내역

- 식재료 구입비 : 850,000원
- 필요물품 구입비 : 44,020원
- 간식 구입비 : 104,560원
- CMS수수료 : 44,000원
- 금융결제원요금 : 44,000원
- SMS수수료 : 500원
- 케익 구입비 : 60,000원

총지출 : 1,147,08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주신 분

- 김갑영 어르신 보호자 :** 야쿠르트 50개, 요플레 30개, 박카스 1박스, 카스타드 5통
- 김용희 어르신 보호자 :** 두유 48개, 미에로화이버 1박스
- 장필연 어르신 보호자 :** 포도 30송이, 생땅콩 1도, 비타500 1박스, 밀감 1박스
- 장석순 어르신 보호자 :** 배 1박스
- 서윤수 어르신 보호자 :** 커피 1박스
- 문창옥 어르신 보호자 :** 포도 1상자
- 박해연 어르신 보호자 :** 배지밀 1박스
- 임성녀 어르신 보호자 :** 밀감 1박스
- 노진덕 어르신 보호자 :** 커피 1통
- 김정란 어르신 보호자 :** 음로수 1박스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이상혁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해오름 사람들

• 직원 동정

이상혁 사회복지사

10월 16일 보수교육(사회복지사협회)

우정미 사회복지사

10월 20일 보수교육(노인복지중앙회)

후원업체 소개



하회물류(주)(www.hahoefood.com)에서는 매일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해오름마을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림)

문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법왕사에서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왕사는 해오름마을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오름마을은 현재 부지 4,500여평을 마련하였으며 조만간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법왕사 1인 1원불을 모십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성지인 비슬산 줄기에 자리잡은 법왕사는 비록 창건 역사는 짧지만 삼한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그 정통을 이어온 신라 불교의 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의 성지인 영남, 그 가운데서도 팔공산과 쌍벽을 이루는 비슬산의 정기는 영남 불교의 거대한 연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역사성에 걸맞게 법왕사는 1백분의 스님을 모시고 1백일 동안 끊임없이 법문을 듣는 백고좌법회를 34회나 봉행하여 법문과 기도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세계최대 불교복지도량 건립의 서원을 세우고 불사를 진행하여 현재 5천평 대지 위에 연건평 1천평, 4층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4층에는 대적광전을, 3층에는 만불전을 조성하였습니다.

《보적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을 조성하여 모시는 공덕은 수미산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만불전에는 법왕사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일인 일원불을 모실 수 있도록 원불을 모시고 있으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 계 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s.or.kr

4층 대적광전 오백나한상 봉안 모연문

법왕사에서는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 삼신불 후불로 5백나한상 봉안을 모연하고 있습니다.

나한(羅漢)은 일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생사윤회의 흐름에 태어나지 않는 성자를 이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부처의 경지에 오른 16명의 뛰어난 제자를 '16나한'이라고 하며 부처가 열반한 뒤 제자 가섭이 부처의 설법을 정리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 때 모였던 제자 500명을 '500나한'이라 하는데 나한은 인간의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당송(唐宋)시대에 유행했던 나한신앙은 삼국 후기부터 소개되어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복을 주는 '복전(福田)'의 의미로 추앙받으면서 서민들과 가장 친숙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복전인 나한상 봉안에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 1인 1나한 동참금 : 108만원(분할납부 가능)
- 동참계좌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법왕불교대학

초·중급 및 야간반, 아함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배워 신심과 원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불교대학 초·중·고급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지스님 직강으로 사찰예절을 비롯해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를 강의하며, 야간반은 주지스님과 외부 법사를 초빙하여 주요 경전을 강의합니다. 한편 아함경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초급, 중급, 야간반은 현재 개설 중입니다.

아함반은 새해 3월 신학기에 개강합니다.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입니다.

개설반	법사	주제	시간
초급반	주지스님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야간반	주지스님	지장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특강반	외부법사	주요 경전(금강경, 아미타경)	추후 공고
아함반	연담스님	아함경(2년간 연속 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야간반	관일스님	법구경 특강	저녁 7시 ~ 8시 30분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
→**상동교**→**수성못 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오는 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산터널 개통으로 범물동에서 법왕사까지 7분, 상인동 터널
입구에서 법왕사까지는 11분으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 ※신천좌안 고가도로 완공시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 ※매주 월~금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장애인복지관을
통과하여 법왕사로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